BLIZZARD ENTERTAINMENT
#2
OVERWATCH™
라 인 하 르 트
드래곤 슬레이어
MATT BURNS
NESSKAIN

라 인 하 르 트

드래곤 슬레이어

글
MATT BURNS

번역
HARRY PARK

그림 및 채색
NESSKAIN

식자
JIHYE SOPHIA HONG

아트 편집
LOGAN LUBERA

편집
ROBERT SIMPSON AND CATE GARY

표지
NESSKAIN

그래픽 디자이너
JOHN J. HILL

크리에이티브 자문
CHRIS METZEN, ARNOLD TSANG, BILL PETRAS, MICHAEL CHU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JUSTIN PARKER, EVELYN FREDERICKSEN

프로듀서
RACHEL DE JONG, MICHAEL BYBEE, JEFFREY WONG

블리자드 스토리 및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JAMES WAUGH

©201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에게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보급품을 구할만한 곳은 아니지만, 연료가 거의 떨어졌어요.
게다가 배도 고프군. 쿠리부어스트 좀 먹어야겠소.
안 돼요. **당장 필요한 걸** 살 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맛있는 돼지고기 튀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소, 브리기테?

여긴 유령 도시 같군.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라인하르트 씨, 이것 좀 보세요.

무장 강도들이 이 지역 마을들을 습격해서 자기 영토로 삼고 있다네요.
지방 당국이 무능한 데다 재정도 없어서 계속 당하고만 있나 봐요.

우와. 엄청 큰 아저씨다.

우릴 드래곤즈한테서 구하러 온 거예요?

용이라고?
드래곤즈? 설마 진짜 용은 아니지?
이 아저씨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못 써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거든.

빨리 돈 내놔.
이미 충분히 가져가지 않았나. 주민들이 앞다퉈 마을을 떠나고 있네.
설마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우기려는 거야?

거기 둘.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좀 하시지?

이분에게서 빼앗은 건 다 돌려드리는 게 신상에 좋을 걸.
너야말로 다치기 전에 썩 사라지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이방인.

좀 오지랖 같은데, 뒷감당할 수 있겠어?
너희 같은 악당들은 전에도 상대해 본 적 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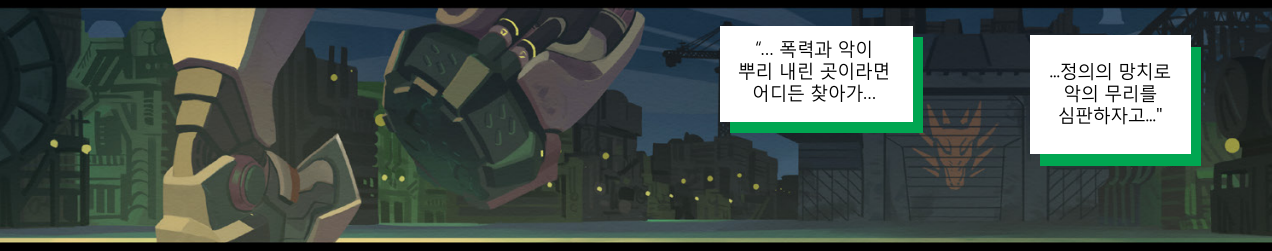
어쩌면 상대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는데?
괜히 덤볐다간 무고한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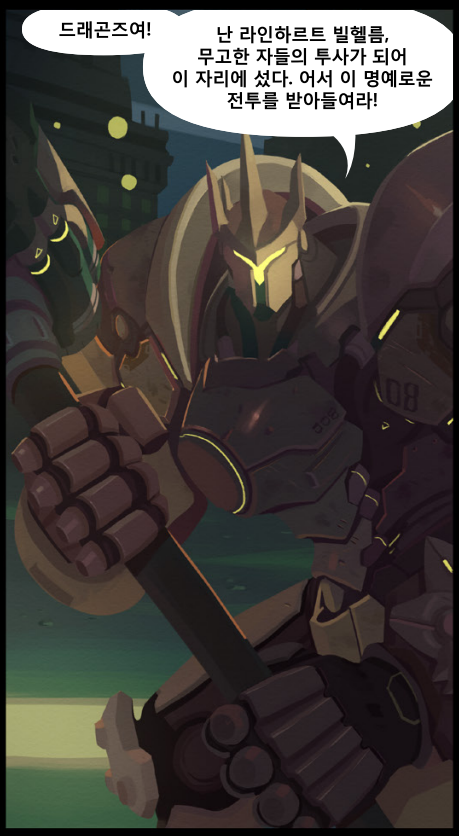
너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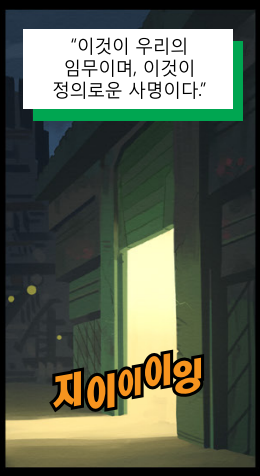
비열한 놈.

컥!
퍼억
얘들아, 새 친구를 따뜻하게 맞이하자.
라인하르트 씨!
라인하르트? **오버워치의 라인하르트 빌헬름**인가? 어디서 봤더라 싶더니.
넌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사는 늙은이에 불과해.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
좋은 날들은 갔어, 라인하르트. 인정해.
여기서 또 얼씬거리면 이번처럼 봐주진 않을 거다.
얘들아, 가자. 이제 정신 차렸겠지.
아직 방문할 마을이 몇 개 더 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거라, 한나야.
도움은 다른 분께 청해야겠구나.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처리하게 둬요.
그대가 말했듯, 이곳 지방 당국은 아무런 힘이 없소.
나 말고는 나설 사람이 없어.
지잉
쿠쿵
새 부품이 필요해요. 이 상태로 싸웠다간 갑주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한 적 있었소? 비록 낡고 해졌더라도…
"…이 갑주는 아직 제 몫을 할 수 있소."
"언젠가는 부서지겠지. 하지만 그날까지, 우린 싸울 것이오."
"이제 오버워치는 없지만, 그 정신은 남아 있소. 우린 맹세했소. 그 이상과 희망을 간직한 채 이 무질서한 세계에 희망을 가져오자고…"
드래곤즈의 위치를 찾았어요. 마을 몇 킬로미터 밖의 낡은 공장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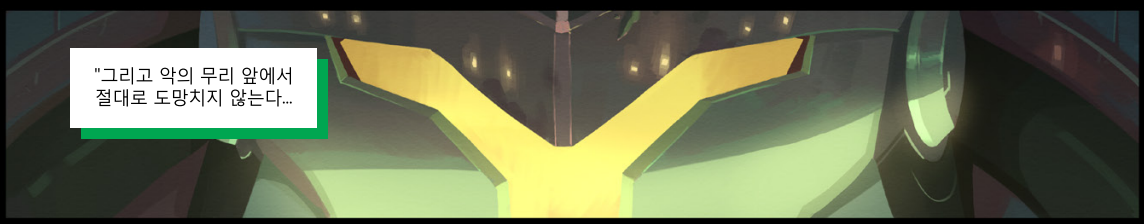

"... 폭력과 악이
뿌리 내린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정의의 망치로
악의 무리를
심판하자고..."


드래곤즈여!
난 라인하르트 빌헬름,
무고한 자들의 투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 어서 이 명예로운
전투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명이다."
지이이잉

또
나타났군.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주지!
저 갑주는
무슨 박물관에서
훔친 건가?


"그리고 악의 무리 앞에서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설령 우리 적이
무시무시한 괴물일지라도!"
히이잉!
두둥!

피융피융
피융피융
콰앙!
크억!
화르륵!
크윽!
화르르르르륵!

크오오오오오!
기이이이잉!
쿠웅!
기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이 땅의 주민들을 괴롭히면, 이번처럼 자비를 베풀진 않을 것이다.
크으으윽...

이제 드래곤즈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시장님.
너무나도 감사하네.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나?

정의의 실현 그 자체가 보답입니다.
어린 아이의 웃음도요.

드래곤즈의 은신처에서 나온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했어.
마음에 드니?

완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급품을 구해볼까요, 라인하르트 씨?
쿠리부어스트도 구해야겠소.

좋아요. **하나** 드셔도 돼요... 근데 차 안에선 안 먹겠다고 약속하세요. 지난번엔 일주일 내내 차 안에 돼지고기 냄새가 진동했다고요.
내 그대에게 약속하지.
네, 네. 퍽이나 그러시겠죠.
끝